

★ 2019년 5월 18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명:『中國歷史』七年級上冊(인민교육출판사, 2018)(2016년 교육부검정)

제3단원 진한시기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립과 강화

○ 진한시기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적 다민족 봉건국가를 세우고 통일을 견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진시황의 폭정으로 인해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게 되고 서한 건립 후 통치자는 노자의 무위사상을 근거로 휴양정책을 실시하였고 백성들의 세감을 절감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한무제 시기에는 대통일의 정세가 더욱 발전하여 한 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동한 이후에는 외척과 호족 세력의 형성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양한시기 과학기술과 문화가 모두 발전하였고, “실크로드”를 개통하여 대외 경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다.

제9과 진의 중국 통일

진의 6국 멸망 전국시기 해마다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었고 각제후국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길 희망했다. 진나라는 상양변법을 통해 국력이 6국을 능가하게 되어 6국 통일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진왕 영정은 즉위 후 각국의 인재를 모집하여 통일의 큰 꿈을 적극 기획하였다. 기원전 230년 진나라는 6국 통일 전쟁을 시작하였고 한, 조, 위, 초, 연, 제 6국을 멸하여 기원전 221년 통일 대업을 이룩하고, 진조를 수립하였으며 함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진의 통일은 춘추전국 이래 장기간 전쟁이 국면을 종결시켰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적 다민족 봉건국가를 수립하였다. 중앙집권제도의 확립 진나라가 통일을 실현한 후 과거 각국의 정치형태는 새로운 사회발전 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 대한 통치 강화를 위해 진조는 대통일 중앙집권제도를 수립하였다.

국가의 최고통치자는 황제라 부르고 지고무상의 권위를 갖고 전국의 모든 군정대권을 총괄하였다. 영정(嬴政)은 “시황제”라고 자칭하여 역사에서 그를 “진시황”이라고 부른다. 황제 아래 중앙정권기구를 두고 승상, 태위, 어사대부가 통속하면서 각각 행정, 국사, 감찰 사무를 관장하였고 최후의 결정권은 황제가 장악하였다. 지방에서는 분봉제를 폐지하고 중앙이 직접관할하는 군현제를 확립하여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었고 후에 40여개 군으로 늘렸다. 군의 행정장관은 군수라고 불렀고 현의 장관을 현령 혹은 현장이라고 불렀다. 군,현의 장관은 모두 조정에서 직접 임명하였고 현 아래는 다시 鄉, 亭, 里 등 기층사회기구를 두었다. 군현제의 실시는 우리 역대 왕조의 지방행정의 기본 모델을 형성하였다.

통일강화를 위한 조치 : 국가통일의 필요에 의해 진시황은 일련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전국시기 7국의 문자방식이 서로 달랐는데 승상 李斯 등에게 문자를 통일하며 필획이 반듯한 小篆 을 제정하여 통용문자로 삼아 전국에서 반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진시황은 명령을 내려 6국의 화폐를 폐지하고 진나라의 원형방공반량전(圓形方孔半兩錢)을 표준화폐로 삼아 전국에 유통시켰다. 또한 이전에 각 제후국들에서 사용한 길이, 용량, 중량 기준이 같지 않은 상황을 개정하기 위해 진시황은 도량형제도를 통일하고 모든 도량형 용기들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감독하면서 만든다고 규정하였다. 도량형의 통일은 경제 발전에 유리하였다. 각기의 교통 왕래를 강화하기 위해 진시황은 령을 내려 수레와 도로의 너비를 통일함과 아울러 전국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진조의 육로 교통이 사통팔달하게 하였다. 그

는 또 사람을 파견하여 ^{영 거}靈藥(운하)를 파게 하였으며 영남과 동해연안 지역을 통일하였고 남북간의 수상운수교통을 편리하게 하였다. 진시황은 몽염 대장을 파견하여 북쪽으로 흉노를 치고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장성은 서쪽의 ^{임 조}臨洮로부터 동쪽의 요동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알려진 “만리장성”이다.

제 10과 진왕조 말기 농민대기의

진의 폭정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는 사업을 이룩하고 통일을 공고히 하는 제반 조치들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군현제 등 후대가 그대로 연용하는 제도들을 창립하였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또한 급급히 성사하려는 특징과 포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부세를 징수했는데 농민들로 하여금 수확물의 3분의 2을 상납하게 강요하였고 해마다 전국에서 대규모 백성을 징발하여 요역과 병역을 복무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려산릉과 아방궁을 짓는데 70만명, 남방을 정벌하는데 50만 사졸, 장성을 수축하는데 40만명을 동원하였다. 당시 전국 인구는 약 2,000만명 이었지만 해마다 부역에 종사하는 성인남자만 300만명이나 되었다. 농민계급은 잔혹한 압제와 착취를 받았는데 수천, 수만의 농민이 고향을 떠나 도망하여 농업생산을 떠나 사회경제가 파괴되었다. 진왕조가 실시한 법률은 매우 가혹하였는데 백성들이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게 되었고 한 사람이 법을 어기면 가족과 이웃이 모두 연루되었다. 당시 형벌에는 몸의 지체를 잔해하는 육형이 있었는데 사형에만 거열형, 요참, 생매장 등 10여종이 있었다.

진시황이 죽은후 즉위한 진2세는 더욱 포악하였다. 진시황을 매장할 때 많은 궁녀들을 수장하였고 황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살해하고 문무대신을 학살하였다. 민중들에 대한 착취는 더욱 잔혹하였다.

진승, 오광의 기의: 기원전 209년 여름, 900여명의 농민이 징발되어 어양에 가서 장성을 지키게 되었다. 그들이 대태향에 이르렀을 때 큰비가 쏟아져 그들은 기한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진조의 법에 의하면 변경수비의 기한을 어긴 경우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 중 인솔자인 진승과 오광은 이대로 죽기보다 반항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압송하던 군관들을 죽였고 농민들은 호응하여 중국역사에서 첫 농민대봉기가 폭발하였다. 대태향봉기후 농민 조직은 매우 빨리 발전하였고 진승은 ^{장 조}칭왕하고 張楚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들은 함양을 진격하였지만 진2세는 긴급히 대군을 집결하여 반격하였고 기의군 후원 부족으로 종국적으로 실패하였고 오광, 진승은 부하에게 잇따라 살해되었다. 진승과 오광은 비록 실패했지만 진왕조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치지 않았고 그 중 항우와 유방이 이끄는 군대가 점차 장대해져서 각각 진군과 전쟁을 하였고, 항우는 ^{거 록}巨鹿 전쟁에서 진의 주력군을 섬멸하였다. 유방은 기회를 타 진조 도움 함양을 들어갔고 기원전 207년 진조의 통치자는 항복하였고 진왕조는 십몇년밖에 못가 멸망하였다.

초한전쟁: 진왕조가 멸망한 후 대군을 거느린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으로 봉하고, 유방을 한왕으로 책봉하였다. 쌍방은 황위를 쟁탈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를 “초한전”이라고 한다. 항우는 비록 세력이 막강했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무력에 의지하였고, 유방은 민심을 얻으며 인재를 잘 활용하여 점차 강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유방의 군대는 ^{해 하}垓下에서 항우와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였고 항우는 자결하고, 유방이 최후 승리를 거두었다.

제11과 서한의 수립과 “^{문 경}文景의 통치”

서한의 수립 : 유방은 항우를 대패하고 전국을 통일한 뒤 기원전 202년에 한왕조를 수립하고 장안에 도읍을 세웠다. 진왕조의 포악한 통치와 진왕조 말기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사회생산력은 크게 파괴되어 서한 초에 도처가 황폐하고 백성들은 제대로 먹고 입지 못했다. 어떻게 생산을 복구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왕조를 견고히 할 것인가는 한왕조 초기 통치자들의 직면한 문제였다.

휴양휴식(休養生息)정책: 한고조는 사회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휴양생식정책을 취하였고,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병사들이 고향에서 농사에 힘쓰게 했고, 또 전란과 기근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들을 평민으로 풀어주어 농업 노동력을 증가시켰다. 민심의 안정을 위해 한고조는 농민의 조세를 줄였고 요역과 병역을 상응하게 감면하였다. 한고조가 죽은 후 뒤를 이은 통치자들이 계속 휴양생식정책을 실시하여 한왕조 초에 경제가 점차 복구되고 경제가 발전하여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文景의 통치”: 서한왕조는 한문제와 한경제 시기에 이르러서도 계속 휴양생식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을 중시하였고 조세와 요역을 더 경감하였으며 토지세를 수확의 30분의 1로 낮추었다. 한문제와 한경제시기에 사람의 사치를 잘라버리는 육형을 폐지하였고 사치를 반대하고 근검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제창하였다. 당시 국력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는 대량의 돈과 식량을 축적하여 이 시기를 “文景의 통치”라고 한다.

제12과 대일통 양조를 공고히 한 한무제

“추은령”의 실시 서한초 제후왕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호족지주들의 세력도 커지면서 토지를 겸병하고 재부를 축적하고 관청과 맞서 사회질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한무제는 “推恩”에 관한 주부언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후왕들은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 외에 봉지를 다시 그 자식들에게 분봉하여 侯國으로 삼을 수 있으며 황제가 봉호를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후국들이 많아지면서 제후왕들의 봉지와 세력은 갈수록 작아지게 되었다. 한무제는 여러 구실로 봉지를 빼앗고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한무제는 刺史제도를 만들어 전국을 13개 州部로 나누었으며 각 州部마다 1명의 자사를 두고 조정을 대표하여 그 주부의 지방관리, 호족들 및 그 자녀들을 감시하여 그들의 행패 부리는 것을 엄금하였다. 이러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백가 폐지, 유가학술만 숭상: 서한초에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아주 미약하였고 통치자들은 “무위이치” 정책을 신봉하였는데 제자백가들의 학설이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제후왕에게 모여들어 황제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무제는 즉위한 후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한무제는 “백가 폐지, 유가학술만 숭상”한다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가학설을 정통사상으로 확립함으로써 임금에게 충성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忠君守禮 사상을 대일통정권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하였다. 한무제는 또한 장안에 태학을 세워 유가의 시경 상서 예기 역경 춘추를 교재로 삼아 통치계급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유생들도 각 정권기구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때로부터 유학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고 역대 왕조에 의해 존중되면서 심원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염철 전매: 당시 화폐를 개인적으로 주조하는 일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염철의 경영권도 대부분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거상들이 출현하여 국가 경제를 통제하였다. 한왕조 초기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돈을 빌려 반란을 평정하려 하였지만 그들은 조정이 이기지 못할까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사회경제에 대한 조정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무제는 화폐주조권을 중앙에 귀속시키고 오수전을 통일적으로 주조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에 염철관을 두어 제염, 제철 등의 경영권을 국유로 회수하여 소금과 철에 대한 정부경영과 독점전매를 실시하였다. 전국범위에서 물자를 통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국가 재정은 크게 개선되었다.

북쪽에서 흉노 공격: 진말한초 몽골초원에서 유목하던 흉노족은 수령 목돌선우의 통솔아래 몽골초원을 통일했고 끊임없이 남하하여 습격하였다. 서한초기에는 국력이 약하여 흉노에게 “화친” 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종실 여인을 흉노 수령 선우에게 시집보냈으며 매년 흉

노에게 대량의 양식과 비단을 보냈다. 文景의 통치”를 거쳐 서한이 강성하게 된 후 한무제 시기에 흉노에 반격을 시작했다. 허타오(河套)평원과 하서주랑지역을 탈취한 후 한군은 지속적으로 북상하여 흉노를 공격했다. 기원전 119년전 한무제는 대장 위청과 광거병이 이끄는 정예부대를 보내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 위청은 대사막을 지나 막북지역에 흉노와 만났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 위청은 기회를 틈타 흉노 선우를 포위할 수 있었고 한군은 200여리를 추격하여 대승을 거둔다. 흉노는 막북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은 뒤 다시는 서한과 대항할 힘이 없게 되어 부분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한무제시기 정제, 사상, 경제, 군사 방면에서 대통일의 국면이 정착됨으로써 서한왕조는 전성기에 진입하게 된다.

제13과 동한의 흥망성쇠

광무제의 중흥: 서한후기에 조정이 갈수록 부패해졌다. 서력 9년 정권을 탈취한 왕망은 新朝를 세웠고 서한은 멸망했다. 왕망의 정치는 사회의 동요를 가중시키면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왕망은 농민봉기에 의해 전복되었고 서한의 종실인 유수가 서력 25년 황제가 되어 낙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를 동한이라고 하며 유수가 바로 광무제이다. 광무제는 통치를 강화하기위해 여러번 노비를 석방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벌을 경감하였으며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하였다. 북방의 소수민족이 내지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여 민족모순을 완화시켰다. 광무제 통치후기에 사회는 안정되어 경제가 발전하였다. 이 시기를 “광무의 중흥”이라고 한다.

외척, 환관의 권력 독점: 동한 중기 이후 황위를 계승한 황제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려 정치를 할 수 없었고 대권을 황제의 모친인 태후들이 주관하였다. 태후들이 자기의 친척을 중용하여 외척 세력이 팽창하였다. 황제가 성장한 후 외척을 배척한 뒤 황제 스스로 군권을 행사하기 위해 환관을 의뢰하게 되어 환관들이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되었고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 동한후기의 외척과 환관이 번갈아 권력을 독점하는 국면이 형성되었고 동한왕조는 쇠퇴의 길로 향한다.

황건적의 난: 동한후기에 조정의 정치가 날로 부패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빈민이 유리결식하였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반항정서가 민간에 퍼졌다. 태평도를 창설한 장각은 사회 최하층에서 10여년간 선교를 거쳐 수십만명의 신도를 가지게 되었다. 184년 장각이 영도한 조직이 있고 준비된 농민대봉기가 폭발하였다. 머리에 누린 수건을 두른 기의군은 전국각지에서 동한왕조를 진격했고 동한정권은 신속히 붕괴되었다.

제14과 중외문명을 소통한 “비단의 길”: 장건의 서역 개통 : 한왕조때 지금의 감숙성 楊關, 옥문과 이서, 다시말해 지금의 신강 그리고 더 먼곳의 광대한 지역을 서역이라고 불렀다. 서한초기 서역에는 소국들이 숲처럼 많았는데 흉노의 통제를 받았고 노역을 하였다. 예를 들면 대월지는 원래 물이 많고 풀이 무성한 기련산(祁連山)일대에서 살았지만 흉노에 의해 서쪽으로 쫓겨난다. 흉노가 서역으로부터 무단히 중원을 향해 진격했기에 한왕조는 매우 피동적이었다. 서역을 중요성을 인식한 한무제는 대월지와 연락하여 흉노를 협공하기로 결정하고 사신을 모집하였다. 張騫은 원래 궁전문을 지키는 郎官이었다. 장건은 용감하게 사신 모집에 응하여 무거운 사명을 지고 기원전 138년에 장안을 떠나 서역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다. 도중에 흉노에게 붙잡혀 10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기회를 틈타 도망쳐나왔다. 그후 천신만고 끝에 대월지에 도착하지만 그들은 서쪽으로 이주한 지 오래 되었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기에 흉노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아 장건은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13년 후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 장건은 한무제에게 서역의 각국에서 보고 들은 일, 한왕조와 왕래하기를 원하는 각 국의 염원을 보고함으로써 한조가 서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기원전 119년 장건은 다시 300여명의 사절단을 거느리고 만마리의 소와 양, 그리고 금화, 비단 등을 지니고 오손 등 서역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였고, 한왕조의 부유함과 강대함을 알게 된 서역의 여러 나들도 장안에 사절을 보내어 한왕조와 상호 이해와 왕래

를 촉진하였다.

실크로드 : 장건이 서역으로 통하는 길을 개척한 후 한조와 서역의 사신들이 서로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동서양간의 경제문화교류가 날마다 빈번해져갔다. 상인들은 장안으로부터 하서주량을 관통하고 서역을 거쳐 한조의 비단 등을 중앙아시아, 서부아시아에 수송하였으며 보다 먼 유럽까지 중계수송하였다. 또한 서역의 물품과 진기한 보물들을 중원까지 운반하였다. 이 유럽과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교통로를 “실크로드”라고 한다. 이 길을 통하여 비단, 칠기 등 물품과 수로 및 우물 공사, 주철 등 기술이 서역에 전해졌고 서역의 우량 종말, 향료, 유리, 보석 등 그리고 호두, 포도, 석류, 거여목 등 식물과 여러 약기, 노래, 춤 등이 중국에 전해졌다. 고대 동서양 교역의 대동맥이었던 실크로드는 중국과 기타 국가, 지역간의 무역 및 문화교류를 아주 크게 촉진시켰다.

한무제는 해상교통도 힘써 개척하였다. 한조는 선후로 여러 갈래의 해상항로를 개척하였다. 그 가운데서 산동연해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은 황해를 건너기만하면 조선, 일본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항로는 동남연해의 항구들에서 출발하여 중남반도를 거쳐 남하한 다음 말레이 반도를 우회하고, 말라카 해협을 관통하여 방글라데시연안으로 통하는 항로였다. 이 항로는 제일 멀리 인도반도 남단과 스리랑카까지 이르렀다. 중국의 비단 등 물품들은 이 항로를 거쳐 다시 유럽지구에 중계 수송되었다. 이러한 항로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불렀다.

서역에 대한 관리: 장건이 서역을 개척한 후 서한왕조는 서역에 대한 경영을 강화하였다. 기원전 60년에 서역에 서역도호를 설치하여 서역관리의 최고 장관으로 삼았다. 서역도호는 서역의 36개 나라를 관할하였으며 도호부를 烏壘城에 두었다. 서역도호는 한조의 명령을 반포, 실시하고 군대를 이동하였으며 식량과 마초를 징벌함으로써 서역지구를 효과적으로 관할하였다. 서역도호의 설치하는 서역이 정식으로 중앙정권에 귀속되었음을 상징한다. 그 관할 범위는 지금의 신강 및 발하쉬 이동,이남의 광대한 지역이었다. 서한 말년 흉노가 재차 서역을 통제하면서 한조와 서역간의 왕래가 중단되었다. 동한은 명제때 군사를 동원하여 흉노를 공격함과 아울러 班超를 사신으로 서역에 파견하였다. 반초는 첩첩산중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한왕조와 관계를 수립하게 한다. 그는 서역 여러 나라들의 신임을 받아 장기간 서역에 머물러 있었다. 반초는 서역에 있는 기간동안 甘英을 사신으로 大秦에 파견하였다. 페르시아에 이른 뒤 저지당한 감영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번 사행으로 인해 서아시아로 통하는 노선이 개척되었다. 반초는 30여년 동안 서역을 경영하다가 71세에 중원으로 돌아와 얼마 안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반용은 부업을 계승하여 재차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

제 15과 兩漢의 과학기술과 문화

제지술의 발명: 종이가 세상에 나오기전 옛사람들은 글을 갑골문에 새기거나 죽간, 비단에 쓰거나 청동기물에 새겼다. 진, 한 왕조 시기의 공문 왕래, 개인서신 및 전적 등은 모두 죽간, 비단을 사용하여 후세사람들은 “冊”, “編”, “卷”으로 서적의 편폭을 불렀는데 이는 바로 죽간을 잇고 엮는 방식과 보관하는 특징에 의해 명한 것이다. 죽간은 대나무로 만들어 무거웠고 비단은 가벼웠지만 가격이 비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큰 제한을 받았다.

서한시기 사람들은 이미 제지에 관한 기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동한시기에 환관 채륜은 선인들의 경험을 총괄하고 제지공예를 개진하여 나무껍질, 삼베 조각, 님마, 낚은 그물 등 식물 섬유를 원료로 하여 종이를 만들었는데 종이의 품질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종이원료는 얻기 쉽고 값이 싸서 보급에 편리하였다. 그 후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서사재료가 되었고 전적의 유전에도 편리하게 되었다. 세계각국의 제지술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각지에 두루 돌다가 전해진 것이다. 제지술의 발명은 세계문명에 대한 중국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이다.

장중경^{장중경}과 화타^{화타}: 중국의 전통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양한시기에 와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진단과 치료 기술이 더욱 선진적이었으며 중의학의 기본 이론도 창립되었다. 장중경은 동한 말기의 명의였다. 그는 겸허하게 명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도처를 다니며 민간 약처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으며 선인들의 경험을 총괄하고 자신의 임상 실험을 결합하여『^{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이라는 책을 완성했다. 이 저작은 중의학 이론과 치료방법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의 징후를 정리하여 “^{치미병}治未病” 이론을 제출하였는데 질병을 미리 예방할 것을 제창하였다. 장중경은 중의 임상이론체계의 개척자이며 중의약학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의술이 뛰어나고 품덕이 고상하여 후세사람들은 그를 “^{의성}醫聖”이라 하였다.

동한 말년의 다른 한 명의 명의^{화타} 화타는 침구, 탕약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유능하였을 뿐만아니라 외과수술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는 “^{마산}麻沸散”을 발명하였는데 환자들에게 그것을 술에 타서 복용하게 한 다음 지각을 잃도록 한 뒤 여러 수술을 하였다. 화타는 또한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 등 다섯가지 동물의 활동자세를 모방하여 “五禽戲”를 창제하여 사람들의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

역사 저작『^{사기}史紀』:『^{사기}史紀』는 중국 고대에 있어서 첫 기전체 통사로서 전설속의 황제로부터 한무제때까지의 약 3,000년의 역사 사실을 기술하였다. 제왕장상의 역사활동을 기록하고 그들의 공적을 긍정하면서도 부패와 죄악을 폭로하였다. 사마천은 『^{사기}史紀』에서 많은 하층 인물들을 위하여 ^{전기}傳記를 썼다.『^{사기}史紀』는 중국의 역사학발전에도 심원한 영향을 주었고 필치가 아름답고 인물형상을 생동감있게 기술하여 문학사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도교와 불교 : 동한말년에 극도의 고난속에서 백성들은 정신적인 의지가 필요하였는데 이는 도교가 흥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각}張角이 창립한 태평도는 황제와 노자를 신봉하면서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일부 ^{장각}神仙方術도 받아들였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전도하였던 장각은 가난한 민중들에게 아주 큰 흡인력을 갖고 있었기에 태평도는 빨리 전파되었다. 당시 ^{한중}漢中, ^{파촉}巴蜀 지역에는 ^{장릉}張陵이 창설한 ^{오두미도}五斗米道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쌀 다섯말을 내기만 하면 입도하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초기 도교와 서로 다른 파벌이었던 태평도와 오두미도는 교의와 전파방식이 서로 비슷하였는데 모두 하층민중의 신봉을 받았다.

불교는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발생하였다.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싯다르타이며 일명 석가모니라고도 부른다. 불교는 인생은 고택과 같은바 인간이 여러 가지 욕망과 번뇌를 없애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불교의 주장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민중들의 염원에 부합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장건이 서역을 개척한 후 불교는 비간 길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다. 동한 명제때 서역의 스님들은 불경을 가지고 낙양에 찾아왔다. 그들은 상층 통치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점차 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중국의 문화가 풍부해졌는바 중국의 사회, 사상, 문학, 건축, 조각, 회화 등 면에서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